

코로나 위기가 대학생역량에 미치는 영향과 대학의 준비

김혜영¹, 박소연², 이숙정^{1*}

¹숙명여자대학교 기초교양학부, ²중앙심리교육연구소

The Impact of the COVID-19 Crisis on the Competence of College Students and the Preparation of University

Hyeyoung Kim¹, Soyeon Park², Sook-Jeong Lee^{1*}

¹Division of General Educ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²Central Institute in Psychological Test and Education

요약 코로나는 대학의 교과 및 비교과 활동 전면에 변화를 일으켰다. 본 연구는 이러한 코로나 상황이 대학생들의 역량에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대학 교육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대학들이 역량기반의 교육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서울소재 S여자대학교의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도구를 통해 측정된 대학생들의 핵심역량과 관련된 자료를 분석하여 코로나 위기 이전과 이후의 학생들의 역량 수준이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를 검증하였다. 결과를 확인하면, 친밀감 형성, 사회적 지원제공, 상황판단력의 세 가지 역량이 코로나 이후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 역량들은 대학 생활 환경의 차이에서 변화를 해석해볼 수 있는 역량들이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핵심역량이 코로나 위기 이전과 이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향후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비대면 중심의 대학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민을 공론화하고자 작성되었다. 무엇보다 코로나 등의 감염병 위기가 언제든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후속 연구들을 통해 대학생의 역량강화라는 교육적 목표 실현을 위한 대학의 노력이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COVID-19 has brought about changes in the curriculum, comparison, and activities of universities. This study aims to determine whether universities need to revise their competency-based education strategies in line with the drastic changes in the college education environment by checking whether this COVID-19 situation has affected the competence of college students.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d the data related to the core competence of college students measured through the core competence diagnosis tool of S Women's University to verify the difference between the level of competence of students before and after COVID-19. An analysis of the results showed that three capabilities namely forming an intimacy, providing social support, and judging situations have decreased since COVID-19. These are the capabilities that enable students to interpret changes in the college living conditions. This study is designed to identify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re capabilities of college students before and after COVID-19 and to discuss the direction of non-face-to-face education that is likely to continue in the future. Above all, we must remember that a crisis similar to the COVID-19 crisis can occur at any time, and a university needs to continue its efforts to realize its educational goal of empowering college students through follow-up studies.

Keywords : Competency, Core Competencies, Competency Diagnosis, COVID-19, College Curriculum

본 논문은 2021년도 한국산학기술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Corresponding Author : Sook-Jeong Lee(Sookmyung Women's Univ.)

email: leesjeong@sookmyung.ac.kr

Received July 8, 2021

Revised August 9, 2021

Accepted October 1, 2021

Published October 31, 2021

1. 서론

최근 사회는 학력, 스펙 등의 외부 요소가 아닌 본질적으로 보유한 개인의 기본역량이 조직의 문화와 직무에 성과를 내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에 따라 조직은 지원자가 조직 문화와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중점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1]. 즉 개인의 역량은 사회 진출 기회 획득에 활용되고, 개인의 능력 평가에도 활용된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발맞추어, 교육부에서는 대학에 대학기본역량진단이라는 평가체계를 통해 대학의 교육이 역량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피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기본역량진단의 평가준거를 통해 각 대학이 교양교육과정과 전공교육과정에서 대학이 인재상에 맞는 역량을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추진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때문에, 많은 대학은 자체적으로 정의한 핵심역량을 교육목표에 포함시키는 것을 넘어, 개별역량을 교육과정 및 교과목 단위에도 연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2].

이에 많은 대학들은 대학의 인재상에 맞는 핵심역량들을 설정하고 이를 교육목표에 반영하고 교과 및 비교과 교육에 반영하는 동시에 그 성과를 파악하는 등의 노력을 수년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예기치 않는 코로나 사태는 대학에 큰 변화를 주게 되었고, 학사 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 어려움을 겪게 하였다. 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에 관한 한 조사 연구에서는 코로나 이전에는 정서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다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학업 적응 및 새로운 기술습득에 어려움이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를 통해 대학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3]. 또 다른 연구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대학생이 대면 및 비대면 대학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4]. 이처럼 실제로 코로나로 많은 대학들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대학생들에게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위기가 대학교육에서 많은 변화를 만들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이 재학생들의 역량에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때문에 본 연구의 핵심은 과연 코로나로 인한 대학교육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학은 역량기반 교육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교육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가이다. 즉, 코로나가 대학교육의 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대학생 역량의 수준이 달라졌다면 대학이

추진하고 있는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적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S여자대학교의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역량진단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의미를 찾고자 한다.

2. 이론적 논의

2.1 코로나로 인한 변화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고 질문을 주고받고, 도서관에서 팀 과제를 모여서 하고, 시험공부를 하던 대학의 모습은 지난 1년간 볼 수 없었다.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고 토론이나 과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정보통신 인프라가 급격히 발달하여 오히려 편리해졌다고는 하지만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거나 특정 상황에 접하면서 향상되는 역량 등은 이전 상황과 비교하여 달라질 수도 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전에 없던 우리의 삶을 창출했다.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을 현재 지켜야 하는 가장 큰 시민성의 덕목과 바람직한 행동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만나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었던 기회, 사람의 규모, 회수 등 모든 것에 제약 받았다. 대학의 수업환경도 마찬가지이다. 교수들은 대면강의에서 학생들의 반응을 살피며 수업에 직간접적인 소통을 통해 수업을 확장하였으나, 온라인 중심의 교육환경에서 지식전달 이외의 친밀감과 관련된 소통과 공감 자체가 어려워졌다. 주로 정보제공 위주의 진행이 주를 이루게 되면서 대면수업의 교수학습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라포가 형성되고 이를 통해 말로 하지 않더라도 느끼고 깨닫게 되는 여러 가지 기회도 사라진 것이다. 그런 교과운영의 상황에서는 질문이나 토론 등은 더욱 어색해졌고 더욱 부담되는 일이 되었다. 실제 교양수업 영역별 수업성찰 설문 결과를 살펴본 한 연구에서 수업목표의 달성도, 수업방법의 적절성, 평가방법의 적절성이 평균 2.5점에서 3.0점(보통수준)으로 기대 한 만큼의 효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별활동,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이 대면수업보다 감소하였다고 하였다[5].

코로나로 인한 변화에 대해 한 연구에서는 코로나 상황에서 대학 신입생들은 대형 강의실에서의 대면수업, 활발한 상호작용이 가능한 수업,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강의 등에 대해 기대 등을 분석하여 이에 충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 대학의 변화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6].

실제 코로나로 인해 수업 적응과 만족이 크게 달라지

지 않았다는 연구도 있는데, 국내 한 대학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전체적으로는 수업 적응도와 만족도 모두 이전보다 비슷하거나 약간 척도 값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7].

이러한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핵심역량강화에 대한 교육목표에 소홀할 수 없는 상황이다.

2.2 역량에 대한 대학의 노력

대학들은 재학생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역량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측정도구나 설문 등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대학이 자체의 핵심역량을 진단할 수 있는 도구를 통해 실제 재학생들의 역량의 수준이나 강화 정도를 검증하거나 특정 대학이 제공하는 진단에 매년 재학생들을 선정하여 측정하도록 한 뒤에 이를 활용하기도 한다. 이 경우 대학 간 비교나 지역 단위 간의 구분이 가능하고 대학의 년차 별 역량 수준이 변화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직업능력개발원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의 공적 기관이 제공하는 진단 도구를 통해 필요에 따라 소속단위별로 또는 대학 전체에서 진단하여 활용하는 경우가 일반화되어 있다.

이처럼 S여자대학교도 핵심역량과 관련된 교육적 노력을 2010년에 시작하였다. 대학의 핵심역량을 개발시킬 수 있도록 역량개발 교과를 교양필수 교과로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교과목명 자체에 ‘역량개발’ 또는 특정 역량의 이름을 직접 반영하여 실제적으로 교과 내용을 통해 역량을 개발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2021년 현재에도 몇 개의 교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역량을 직접 언급하고 강화시키는 수업을 진행하거나 수업의 방법 등이 해당 역량을 위한 교과임을 강조하면서 역량 교육을 다년간 실현하고 있다.

S여자대학교는 자체개발한 역량진단도구를 통해 매년 재학생들의 역량을 진단하고 이를 활용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 활용된 S여자대학교의 역량진단도구는 ‘분석적사고, 비판적사고, 창의적사고, 문제해결적 사고, 책임감, 관계구축, 의사소통, 다문화감수성, 시민윤리, 친화력, 전략기획, 조직이해’ 등의 다양한 역량을 측정하고 있다.

3. 연구자료와 분석

3.1 역량진단도구

본 연구는 코로나로 인한 위기가 대학교육에서의 많은 변화를 만들면서 재학생들의 역량에도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S여자대학교의 역량진단 결과를 활용하였다.

S여자대학교가 자체개발한 역량진단도구에서는 인지영역 내에 언어유추, 수추리, 판단력, 자료추론, 창의적 사고, 문제해결을 포함하고 사회영역에 친밀감형성, 사회적 지원 제공, 지속적 관계유지, 문화적 수용성, 문화적 호기심, 이문화경험추구, 자발적 역할탐색과 인식, 적극적 역할수행, 공동목표에 대한 몰입, 적극적 경청, 친화적 의사소통, 설득적 의사소통을 포함하였다. 조직영역에서는 시민윤리, 친화력, 영향력, 도전성취, 자기전문, 조직이해, 전략기획, 변화주도, 글로벌파워 역량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2010년 개발된 사회역량은 각 하위 역량별로 4문항씩 구성되어 있으며, 2개의 선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Ipsative 방식으로 문항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를 검증할 수 없었으며, 한 달 간격으로 동일 피검자에게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재검사 신뢰도 계수를 산출하였다. 개발 당시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계수는 .454에서 .817 사이로 나타났다. 조직역량은 5점 Likert 형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2년 개발 당시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를 살펴보면 .779~.912 사이의 양호한 신뢰도를 보고하고 있다. 인지역량은 2013년 개발하였으며 총 5개 역량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항 형태는 직접 답을 적어야 하는 창의적 사고를 제외하고는 5지 선다형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개발 당시의 신뢰도 계수는 내적 일관성신뢰도 계수가 .700 ~ .808 사이로 대체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3.2 자료 수집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역량비교를 위해 2019년과 2020년의 역량진단 데이터를 표집하였다. 코로나 이전이라고 볼 수 있는 2019년은 278명의 데이터가 활용되었으며, 코로나 이후인 2020년에는 219명의 데이터가 활용되었다. S여자대학교는 교양필수교과와 연계하여 모든 재학생이 역량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가 되어 있었는데 2020년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교 출입이 제한되고 일정한 공간에 모여서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0년에는 자발적으로 지원한 학생들이 진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청한 학생들만 2~3명씩 대형 PC실에 충분한 거리를 두고 착석하여 진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진단의 시점은 코로나가 처음 발생한 초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지속되고 약간 안정을 찾아가던 10월~11월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운영에 따라 2020년의 자료의 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에

2019년 전체 데이터 중에 2020년 진단 시기와 비슷하게 진행된 진단(학기 후반)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자료의 학년별, 단과대학별 분포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Distribution of data by grade

	2019		2020	
	N	%	N	%
Freshman	251	90.3	195	89.0
Sophomore	25	9.0	13	5.9
Junior	2	.7	10	4.6
Senior	0	0	1	.5
Total	278	100.0	219	100.0

3.3 자료 분석

분석에 활용된 척도는 핵심역량 하위에서 활용되는 세부역량으로써 인지영역에서의 7개 역량, 사회영역에서의 12개 역량, 조직영역에서의 10개 역량에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사용하였으며, SPSS ver.25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데이터는 영역별 역량데이터가 모두 존재하는 데이터만을 활용하였으며, 외국인학생의 데이터는 제외하였다.

코로나 전후의 역량변화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2020년과 2019년 자료에 대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사회영역의 경우 친밀감형성($t=-3.262, p<.01$), 사회적 지원제공($t=-1.999, p<.05$) 척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전년도에 비해 평균 점수가 낮아졌으며, 자발적 역할 탐색·인식($t=2.737, p<.01$), 적극적 역할수행($t=3.295, p<.01$) 척도에서 전년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다. 친밀감형성 척도 점수의 하락은 코로나로 인해 대외적인 관계가 대폭 축소된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학생들에게 친밀감 형성은 생애주기에 있어서 대인관계의 폭과 깊이를 확장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친밀감을 형성시킬 수 있는 기회가 대학생들 중에 자연스럽게 제공되어야 하는데 현재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코로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완할 수 있는 지원책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발적 역할탐색과 인식의 부분은 필수로 진단을 해야 하던 2019년에서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선택형 진단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책임감이 높은 진취적이고 자발적인 학생들이 진단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이는 자세한 해석과 적용방향 탐색에서는 제외하였다. Table 2는 코로나 전후의 사회영역 척도별 역

량의 차이이다.

Table 2. Analysis of differences in social areas

Capability	t	p	Year	N	AVE	STD
Building intimacy	-3.262	.001	2019	278	51.55	2.69
			2020	219	52.36	2.64
Providing social support	-1.999	.046	2019	278	51.89	2.41
			2020	219	52.87	2.27
Maintain a continuous relationship	-1.677	.094	2019	278	50.03	2.59
			2020	219	50.89	2.81
Cultural acceptability	-1.253	.211	2019	278	49.31	2.35
			2020	219	50.81	2.20
Cultural curiosity	.960	.338	2019	278	51.80	2.87
			2020	219	53.68	2.91
Pursuit of experience in this culture	1.045	.297	2019	278	52.72	2.64
			2020	219	54.18	2.78
Voluntary role exploration and recognition	2.737	.006	2019	278	51.96	2.30
			2020	219	54.49	2.33
Active role play	3.295	.001	2019	278	49.42	2.57
			2020	219	51.15	2.72
Immerse yourself in a common goal	.006	.995	2019	278	51.79	2.09
			2020	219	54.25	1.97
Active listening	-.207	.836	2019	278	51.23	2.09
			2020	219	51.28	2.03
Friendly communication	.545	.586	2019	278	55.12	2.73
			2020	219	54.87	3.03
Persuasive communication	-1.082	.280	2019	278	44.00	2.26
			2020	219	46.23	2.82

Table 3의 조직영역의 경우 자기전문($t=2.748, p<.01$), 전략기획($t=3.160, p<.01$), 변화주도($t=2.225, p<.05$), 위기관리($t=3.424, p<.01$) 4개 척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전년도 대비 평균 점수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도 선택 측정이었기 때문에 다르게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나 위기관리역량은 코로나 상황으로 향상되었는지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Table 4의 인지영역은 수처리($t=2.351, p<.05$), 창의적 사고($t=3.543, p<.001$), 문제해결력($t=2.423, p<.05$)에서 전년도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으며, 상황판단력($t=-2.063, p<.05$) 척도에서는 코로나 이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평균 점수가 나타났다. 우리는 이 부분에 주목할 수 있는데, 상황판단력의 경우에는 대학생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최적 방안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상황판단검사 형태로 개발된 척도이

다. 그런데 대학생의 일상생활로 정의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2020년은 대학 생활 뿐 아니라 갈등을 해결해볼 기회조차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진단의 대상이 되는 1학년의 경우 이 부분을 강화시킬 기회가 없었다는 것을 간과하기 어렵다. 교과 뿐 아니라 비교과, 자치활동 등의 대학생활 전반이 비대면 형태로 진행되면서 학생들은 조직과 특정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워볼 기회가 부재했고 상황에 도출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는 것은 이를 위한 보안책이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S여자대학교는 일반대학으로써 사이버형태로 진행되는 원격대학과는 다르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이 해결되면 다시 강화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지만,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또 어떠한 변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한 학기, 1년은 상당히 큰 의미를 갖기 때문에 대학교 강구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유의하게 통계적으로 향상된 사회역량의 하위 척도인 자발적 역할 탐색·인식(2020년 Mean = 8.38, SD = 2.34), 적극적 역할수행(2020년 Mean = 8.19, SD = 2.73) 척도에 대해 각각 2020년의 평균을 기준으로 하여 상하 두 집단으로 구분한 뒤,

Table 3. Analysis of differences in organizational areas

Capability	t	p	Year	N	AVE	STD
Civil ethics	1.128	.260	2019	278	51.55	8.14
			2020	219	52.36	7.78
Sociability	1.131	.258	2019	278	51.89	9.17
			2020	219	52.87	10.10
Influence	.947	.344	2019	278	50.03	8.85
			2020	219	50.89	10.92
Challenge accomplished	1.818	.070	2019	278	49.31	9.13
			2020	219	50.81	9.14
Self-specialization	2.748	.006	2019	278	51.80	7.28
			2020	219	53.68	7.88
Organizational understanding	1.709	.088	2019	278	52.72	9.54
			2020	219	54.18	9.38
Strategic planning	3.160	.002	2019	278	51.96	8.92
			2020	219	54.49	8.80
Change-driven	2.225	.027	2019	278	49.42	8.50
			2020	219	51.15	8.73
Crisis management	3.424	.001	2019	278	51.79	7.91
			2020	219	54.25	8.01
Global power	.064	.949	2019	278	51.23	7.45
			2020	219	51.28	8.06

Table 4. Analysis of differences in cognitive areas

Capability	t	p	Year	N	AVE	STD
Language inference	-.284	.776	2019	278	55.12	9.77
			2020	219	54.87	9.80
Inference	2.351	.019	2019	278	44.00	10.23
			2020	217	46.23	10.81
Judgment	-1.619	.106	2019	277	48.60	10.19
			2020	219	47.11	10.22
Data inference	.684	.494	2019	278	51.11	10.57
			2020	219	51.75	10.11
Creative thinking	3.543	.000	2019	278	54.73	8.40
			2020	219	57.44	8.54
Problem solving power	2.423	.016	2019	277	48.47	10.59
			2020	217	50.68	9.28
Situational judgment	-2.063	.040	2019	278	45.90	10.05
			2020	219	44.02	10.09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하락한 친밀감 형성과 사회적 지원제공 척도의 집단차이 검정을 실시하였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향상이 나타난 척도의 상하 집단의 학생들이 코로나 이후 유의하게 감소한 척도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함을 통해 특히 어떤 역량에서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Table 5에 나타난 적극적 역할수행 척도에 따른 상하 집단의 차이검증 결과를 살펴볼 때, 친밀감 형성 척도의 경우 상집단의 평균 점수(7.22)가 하집단의 평균 점수(8.48)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사회적 지원 제공 척도에서도 적극적 역할 수행 상집단의 평균이 9.19점으로 하집단인 9.81 집단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Table 5. Establishment of intimacy between upper and lower classes and collective differences in providing social support according to the measures for active role in social competence (2020)

	t	p	Group	N	AVE	STD
Building intimacy	-3.606	.000	High	98	7.22	2.76
			Low	121	8.48	2.41
Providing social support	-2.029	.044	High	98	9.19	2.34
			Low	121	9.81	2.19

Table 6의 자발적 역할 탐색 및 인식 척도에 따른 상하 집단의 차이검증 결과를 살펴볼 때, 친밀감 형성 척도의 경우 상집단의 평균이 7.01점으로 하집단인 8.70점

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으며, 사회적 지원제공 척도의 경우에도 상집단의 평균이 8.95점으로 하집단 평균인 10.03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Table 6. Establishment of intimacy between upper and lower classes and collective differences in providing social support according to the social competency voluntary role exploration and recognition scale (2020)

	t	p	Group	N	AVE	STD
Building intimacy	-4.966	.000	high	102	7.01	2.46
			low	117	8.70	2.54
Providing social support	-3.604	.000	high	102	8.95	2.28
			low	117	10.03	2.14

이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적극적 역할 수행과 자발적 역할 탐색 및 인식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친밀감 형성과 사회적 지원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역량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교육과정 이행 및 비교과과정 설계 시에 면밀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 이는 역량 간의 관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기존의 연구 등과도 유사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코로나 시대에 대학을 다녀야 하는 학생들에게 졸업 전에 더욱 세심한 역량개발 및 강화에 대한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4.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전략

S여자대학교는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방안을 활용하면서 학생들의 학사일정과 강의방법 등을 대폭 변화시켰다. 코로나의 위협 때문에 2020년 1학기, 2학기, 모든 계절 학기에서 소규모 실험수업을 제외한 모든 교과와 수업을 온라인으로 운영하였으며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비교과활동이나 학생자치 활동도 온라인으로 전환되거나 취소되는 등 큰 변화를 겪었다. S여자대학교의 경우 온라인기반이 잘 구축되어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으나 재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대학생생활과 학업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역량을 습득할 기회가 부족했다.

대학들은 핵심역량강화 정책을 자체적으로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대학이 핵심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코로나라는 위기가 다시 반복될 수

있고 급변하고 있는 사회변화의 상황에서 대학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S여자대학교 재학생들의 역량수준이 코로나 상황 이후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학교육차원에서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친밀감 형성, 사회적 지원제공, 문제해결(상황)의 역량이 코로나 이후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양교육과정, 비교과나 전공교육과정, 학생자치활동 등을 통해 해당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내에서 해당 역량 강화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하나 또는 다수의 전략을 동시에 활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대학이 할 수 있는 전략을 고민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친화력, 사회적 지원제공에 관련된 역량연계 교과와 문제해결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과를 우선 수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둘째, 약화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과 목록을 확대 개설한다. 신규교과를 개설하거나 기존 교과에서 해당 역량에 관련된 부분을 더욱 강화하여 새롭게 해당 역량을 연계하는 것도 가능하다. 셋째, 기존의 해당 역량과 연계된 교과에서는 지금까지 해당 역량을 교과를 통해 얼마나 개선시켜 줄 수 있었는지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비대면 체계 내에서 해당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수업목표제시, 수업구조마련, 평가체계개선 등을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기존의 교과를 운영하는 체계 내에서 역량강화방법을 더욱 면밀하게 교정하는 것이 대학의 자원과 시간의 낭비가 없는 효율적인 대안일 수 있다.

문제해결역량 중에는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최적 방안을 찾을 수 있는 능력과 문제해결을 위해 대안들을 비교, 분석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등으로 구분이 가능한데 본 연구에서 S여자대학교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 이후에 대안을 비교 분석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직접적인 상황에 따른 문제해결역량이 감소 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실제 교과에서 프로젝트 중심으로 교과를 운영하면서 상황을 다양하게 제시하여 학생별, 또는 팀별 별도의 상황이나 문제를 가지고 접근해볼 수 있도록 하되 학생들의 협업기반의 문제해결형 과제를 제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재학생들의 역량 수준에 대한 변화 결과를 확인하면, 친밀감 형성, 사회적 지원제공, 문제해결(상황)의 역량이 코로나 이후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당분간 코로나가 지속

되고 있으며, 또 다른 감염병 위기 상황이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으므로 대학들은 대학 자체적으로 설정한 핵심역량 중에 코로나로 인해 강화에 어려움을 겪는 역량이 있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대학생의 핵심역량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한 한 연구에서는 [8], 학년별로 역량의 변화가 있다고 밝히면서 시간과 노력을 전공과 교양을 중심으로 학습할 때 핵심역량이 증가 되다가 졸업과 취업을 앞둔 4학년 때는 핵심역량의 증진에 관련된 목표보다는 취업에 힘을 쏟기 때문에 핵심역량은 3학년까지 가장 큰 폭으로 증진이 있다고 알렸다. 때문에 핵심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은 신입생 및 저학년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이는 저학년 교양교과를 통해 함양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 19로 대학 전체가 수업을 온라인 방식으로 제공하게 됨으로써 온라인기반 교육의 빠른 확산을 가져왔고, 이러한 기류를 탄 온라인 수업은 교육체계를 변화시킬 것이고, 코로나 19가 종식되더라도 수업방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9]. 대학생들의 역량이 코로나 상황에 의해 환경적 영향인지 교육방법이 비대면 기반의 온라인 수업의 영향인지를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다르게 드러나지는 대학생들의 역량 수준에 대해 보완적으로 개선시켜 줄 수 있는 대학의 노력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고민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부분에 본연구가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25&aid=0002966636>
- [2] H.Y. Kim, J.H. Yoo, and S.K. Lee, "Efforts of Liberal Arts Education to Strengthen the Core Competence of Universities", *Liberal Arts and Sciences Education*, Vol.2, No.2, pp.83-103, 2021.
- [3] K.A. Lee, and K.S. Son, "A Study on the College Adaptation and Core competencies of Students in Post Corona Era",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12, No.2, pp.239-254, 2021.
- [4] H.J. Moon, "A Phenomenological Study of Stress Experience of College Students Displayed in Non-face-to-face College Life by COVID-19",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1, No.11, pp.233-247, 2021.
- [5] S.Y. Hong, "Teaching Reflection on the General Education Courses in Non Face-to-face Environment Due to the Covid-19 Pandemic",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14, No.6, pp.283-298, 2020.

- [6] S.Y. Shin, and S.H. Lee, "Analysis of Learning Experiences of University Freshmen in the COVID-19 Pandemic Situation",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12, No.3, pp.427-442, 2021.
- [7] W.S. Kim, and H.B. Choi, "Analysis of Class Adaptation and Satisfaction under Untact Educational Environment caused by COVID-19: Handong Global University Cas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12, No.5, pp.109-119, 2021.
- [8] M.J. Cho, and S.I. Choi, "An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Influencing the Improvement of University Students' Core Competencies",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13, No.4, pp. 207-233, 2019.
- [9] Y.H. Kim, "Virtual Academic Experience of College Students Due to COVID-19",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1, No.12, pp.278-290, 2020.

김 혜 영(Hyeyoung Kim)

[정회원]



- 2009년 9월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박사)
- 2009년 12월 :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원
- 2010년 3월 ~ 현재 : 숙명여자대학교 기초교양학부 부교수

<관심분야>

역량교육, 시민교육, IT전략, 교양교육과정

박 소 연(Soyeon Park)

[정회원]



- 2007년 8월 :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박사)
- 1994년 3월 ~ 2010년 11월 : 한국행동과학연구소 검사개발본부장
- 2018년 9월 ~ 현재 : 숙명여자대학교 기초교양대학 초빙교수
- 2015년 3월 ~ 현재 : 중앙심리교육연구소 소장
- 2013년 7월 ~ 현재 : ㈜마인드업 대표

<관심분야>

심리검사개발, 역량교육

이 숙 정(Sook-Jeong Lee)

[정회원]



- 2005년 8월 :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박사)
- 2008년 3월 ~ 2010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책임연구원
- 2010년 3월 ~ 2011년 2월 : 동국대학교(경주) 교직학과 교수
- 2011년 3월 ~ 현재 : 숙명여자대학교 기초교양학부 교수

〈관심분야〉

교양교육, 교육심리